

경남신문

경남문화재단 설립 기대된다

경남에 올 하반기 중으로 '경남문화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내 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경남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곧 각계인사로 구성된 발기인을 구성,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한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것은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문화예술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체계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경남도는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 103억원을 재단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운영자금을 포함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이상을 출연해 오는 2015년까지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늘린 후 2025년까지 총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 출범 초기에는 관·민이 함께 운영하지만 자본금이 늘고 체계가 잡히면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경남도는 설립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사전 여론 형성을 위해 오는 14일 경남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 문화재단은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서울시에 이미 설립돼 있고 부산시와 대구시도 설립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미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꼼꼼히 챙겨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재단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문화재단은 자발적인 참여와 탄력적인 인력운용, 전문인력의 네트워크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많은 공기업들의 운영형태에서 보아 왔듯이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또다른 형태의 세금만 축내는 공기업처럼 변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남은 높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문화환경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도 미미한 실정이다. 경남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메세나(기업의 문화지원) 활동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설립될 경남문화재단은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문화단체를 지원하며 지역문화 예술을 이끌어가는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경남신문